

영암읍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 차질 없이 '착착'

영암군, 숙원사업 '남주로 지중화사업' 1구간 지중화 완료 추석 이전까지 2구간 배전 선로 지중화...12월 전체 마무리

영암군이 영암읍민의 오랜 숙원인 지중화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영암군의 요청과 한국전력공사의 심의로 '남주로 지중화사업'이 최종 결정됐다.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 환경 등을 위한 이 사업은, 기존의 배전·통신 선로를 땅에 묻고, 전신주 등을 철거하는 내용이다.

남주로 지중화사업은 1구간인 영암읍 공설운동장에서 영암역, 영암터미널을 거쳐 2구간인 영암오거리까지 2km 구간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영암군과 한전, KT 등 7개 통신사업자는, 2021년 4월에 협약을 체결했으나 기

업 내부사정으로 착공은 지난해 9월에 들어갔다.

이후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영암군은 지중화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인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했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6월, 1구간 배전 선로 지중화를 마쳤다.

이달 11일부터는 지중화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도 착공했다.

영암군은 추석 이전까지 2구간 배전 선로 지중화를 끝내고, 올해 12월까지 남주로 지중화사업 전체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나아가 영암오거리~영암산림조합 입구 중앙로를 3구간으로 정해 내년 6월까지 추가 지



중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안전사고 없이 지중화사업을 완료해 도시미관과 보행환경 개선, 주민 생활안전 증대 등을 이뤄내겠다"며 "주민 불편

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주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 지역관광추진조직, 관광기획 역량 키워 나간다 지역 관광 활성화 DMO 육성사업

목포시가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로서 지역관광추진조직(DMO)과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찬 항해를 하고 있다.

'DMO'는 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의 약자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관광사업을 발굴·기획·운영하는 전문 조직을 뜻한다. 목포시 대표적인 DMO로는 목포문화재단이 있다.

또한, DMO 육성지원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중 하나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로서 필수사업으로써, 지역 내 주민·사업체·지자체 등이 연계해 주도적으로 지역관광자원을 발굴해 기획·경영·관리하는 지역관광전문 조직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에 이어 이번 해로 4년차인 목포 DMO는 관광도시로서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포DMO는 강릉, 신안, 남해 등 총 5곳의 지역과 지역관광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목포관광트레킹 등 프로그램 진행으로 약 7,000명이 참여해 10,000개 이상의 목포관광후기를 남겼으며, 한국관광공사 지원을 받아 제작한 목포 일주일살기 홍보영상은 조회 수 1,000만뷰를 달성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목포 일주일살기 총 120팀 233명 참여로 이어졌다.

또 코로나19 안심관광, 친환경 목포여행, 생활인구 유입증대 등 지역현안문제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관광거점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DMO는 지난 7월부터 지역민과 함께 '목포에서 일주일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다도해 핵심도시인 신안군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서남권 시·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참가자는 체류기간(4~6박) 동안 팀 인원수에 따라 최대 6만원의 숙박비를 지원받으며 관광 및 문화체험비를 할인받는다. 목포에서 일주일 살기는 오는 10월까지 회차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9월에는 목포의 시간을 걷는 관광트레킹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최고의 여행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 줄 목포문화박람회를 즐기고 원도심을 거닐며 120년 전 목포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고, 대반동과 평화광장에서 펼쳐지는 최첨단 관광콘텐츠를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느끼게 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대표 관광추진조직 목포문화재단과 함께 내실 있는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해 2025년에는 관광객 1천 5백만, 외국인 50만 이상이 방문하는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신안군,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신안군은 8월~11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대표적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쯤쯤가무시증이 있으며 증상으로는 고열과 함께 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치료제 및 예방백신이 없어 진드기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예방수칙으로는 피부가 진드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긴 팔·바지·양말,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하며, 작업 전 진드기 기피제 뿌리기, 풀밭에 앉을 때 돛자리 사용, 작업 후 작업복을 세탁하고 바로 샤워하기 등이 있다. 또한, 농로·거주지 주변 등 풀을 베어 진드기가 서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신안군보건소에서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3월부터 공공근로·노인대학 등을 연계하여 농업인·임업인 대상으로 예방수칙 및 올바른 기피제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예방 물품(토시·진드기 기피제) 배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예방 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함평군, 버스 랩핑 광고로 관광 홍보 '눈길'



함평군이 버스 랩핑 광고로 이동식 관광 홍보에 나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눈길을 끌고 있다.
함평군은 "설레임 가득한 새로운 관광도

시 함평으로 GO' 문구의 랩핑 광고를 서울·경기권과 경상권으로 운행하는 금호고속버스 2대에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문구를 최대한 단순화했으며 함평군 대표색인 초록색을 활용하는 등 군의 특색을 살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정병호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장은 "새로운 홍보 방법인 버스 랩핑을 통한 이동식 홍보로 관광객들이 우리 함평군을 많이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무안군,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 교육 실시

총 325명 대상 이달 말까지 공직윤리시스템에 빠짐없이 신고해야



무안군은 지난 11일 군청 전산 교육장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전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7월 정기 인사발령으로 발생한 60여 명의 재산등록 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 요령, 재산등록 시스템 사용 방법,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재 재산등록 신고 대상 공직자는 군수, 군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회계·감사·건축·토목 등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유관부서 12개 부서 직원 등 총 315명이다.

등록의무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사항을 8월 말까지 공직윤리시스템에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군은 정확한 재산등록 신고를 돕기 위해 상반기에는 정기재산 변동 신고 안내서를 제작 배부하고, 매년 2회 전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안=이성기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뀐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